

목록

2012_하반기_1	1
2012_하반기_2	2
2012_하반기_3	3
2012_하반기_4	4
2012_하반기_5	5
2012_하반기_6	6
2012_하반기_7	7
2012_하반기_8	8
2012_하반기_9	9
2012_하반기_10	10
2012_하반기_11	11
2012_하반기_12	12
2012_하반기_13	13
2012_하반기_14	14
2012_하반기_15	15
2012_하반기_16	16
2012_하반기_17	17
2012_하반기_18	18
2012_하반기_19	19
2012_하반기_20	20
2012_하반기_21	21
2012_하반기_22	22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소식지

그림비



2012 하반기

목 차

2012 하반기 그림비

2 여는 글

강순애 교수님 여는 글

4 신입 교수님 인터뷰

박희진 교수님과 ‘요모조모’ 인터뷰

6 방학 중 지정인

도활부 새날공부방 봉사활동 후기
따뜻함과 나눔이 있는 그곳, 우즈베키
스탄!
송수인 학우에게 듣는다. 책마을 작은
도서관!
낮선 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특별
한 경험

14 지정인 사진

지정인의 빛나는 얼굴

16 지정소식

3일의 여정 끝에 구한 지혜
학생회장단 인터뷰
집행부 소개

24 한성소식

제1회 낙산제
승패를 떠난 지정의 멋진 승부

28 교외활동

책과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숲 속
도서관에 가다

30 롤링페이퍼

나도 한마디

34 마치며

편집후기

"행복한 여러분이 지식정보학부의 미래 자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자아를 찾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최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안병광 유니온약품 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최근 문화유산인 대원군의 석과정을 복원하고 이 일대와 신축미술관을 묶어 서울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 개관전으로 “등섬, 르네상스로 가세!” 라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안 회장은 서울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담은 『마침내 미술관』의 서문에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일구며 살아갈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문화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맺게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의 산물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문화의 산물은 토비아스의 우물처럼 아무리 퍼 올려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우물가에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라고 미술관의 역할을 소박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애초에 대화를 제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는 DNA가 결핍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합니다. 바람직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화를 빗대어 말하기를 “대 놓고 화내는 것”이라 한답니다. 대화의 기본은 공을 주고받듯 기분 좋게 말을 주고받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는 훈련을 쌓아야 가능해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생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모두 핸드폰 또는 과학기기에 구속되어 자아에 대해 돌아볼 시간을 거의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핸드폰일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겠지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을 노예가 되어간다는 것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남과 똑같이 변하거나 남이 나와 똑같이 변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자신과 다른 가상의 자아를 만들어야만 남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현대의 움츠린 인간형으로 즉 현실 세계의 ‘스토커’ 나 은둔형 외톨이 등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람 사이에서 서로 기대며 꿈과 행복을 궁극의 가치로 내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02년에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속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지요. 영화 속의 치히로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 가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인내하며 가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일본을 많이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 각계의 문제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도쿄대 강상중 교수(62)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후 일본인은 경제적 성공으로 풍요롭게 된 국민이었지만 자기만족적인 자화상이 20년 전부터 점차 붕괴되기 시작했고 매년 3만 명 정도의 고독사, 무연사, 자살자들이 나오는 사회가 됐다.” 라고 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세계화 속에 나타나는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압축되고 첨예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과 중장년층이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암울한 사회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하나요? 여러분이 제게 ‘정말 행복의 길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소설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발견하고 혼란의 과정을 지나 자아를 찾아가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의 슬픔과 행복이 다르지 않으며 거대한 역사 속에서 소외된 개인의 삶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이 방황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대를 감을 때는 아팠다. 그때부터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속이기로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대학이 토비아스의 우물처럼 아무리 퍼 올려도 마르지 않는 문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서로 즐겁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학문을 통하여 정보를 나누는 행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슬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미래는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도, 도서관 자체가 되는 사람들로 넘쳐나겠지요. 지금의 행복한 여러분이 지식정보학부의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식정보학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 있네!’ 라고 즐거운 일성을 보냈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여러분!!!

지식정보학부 강순애 교수

박희진 교수님과 '요모조모' 인터뷰

올해 한성대학교 교수님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주세요.

첫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학년 '지식정보사회론' 수업이었는데 입학식도 하기 전 수업이었어요. 학생들은 입학식도 하기 전의 첫 수업인데다가 전공수업이라 많이 경직되어있고 낯설어했어요. 저도 많이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기분 좋은 긴장,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는 것 때문인지 그 순간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문헌정보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항상 면담할 때 학생들한테만 물어보던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받았네요. 사실 문헌정보학을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원래 심리학 전공을 지망했었는데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문헌정보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입학을 하고나서 재미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퇴를 생각하다가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3년 공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듣지만 결국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그게 우리 문헌정보학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정보학분야, 기록관리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정보학분야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있어서 각각 다른 분야인거 같지만 결국에 추구하는 목표는 '어떻게 이용자에게 정보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한가지인 것이 제일 큰 매력이에요.

교수님의 대학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이 무엇인가요?

학생면담을 해보면 1학년 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대학생활을 잘할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공강 때 너무 심심한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때는 1학년 때 밖에 없어요. 3학년만 되어도 취업이야기 밖에 안하니까요. 저는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어요. 굳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남은 시간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습관적으로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선생님들과 따로 스터디나 튜터를 하면서 재미있게 영어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외국을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외국여행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를 느끼면서 '좀 더 많은 곳을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교수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한 계기 & 빠른 시간 안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대학원 졸업 후에 1년 정도 회사생활을 했었어요. '대학무역진흥공사'에서 정보 제공자 역할을 했었어요. 무역을 하려면 수출이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판도를 알아야 되니까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DB에서 찾아서 제공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보를 찾아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단조롭고 창의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소스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제공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DB에서 찾아서 제공하는 것 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로 나가서 공부를 더 하게 되었어요. 박사과정을 하면서는 한 눈 팔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엇나가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정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면 어떠신가요?

우리 한성대학교에 서은경 교수님, 퇴임하신 최석주 교수님, 조인숙 교수님께서 정보학을 전공하셨어요.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들의 논문을 봤었기 때문에 관심사가 어떠신지 아는데, 사실 정보학에서도 서로 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서은경 교수님께서서는 자동 처리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저는 이용자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같은 현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보완, 접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어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가 되기 전에 성균관대학교에 강사로 있을 때는 '교양도 아니고 전공을 굳이 영어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어서 한성대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지식정보사회론'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면서 영어수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생들은 어렵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개념을 배울 때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수업을 듣고 배운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념이 영어로 되어있더라도 혼돈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과 동시에 원서를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책 대부분이 외국의 자료나 번역서이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해져야하니까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우리나라와의 교육과정이나 공부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는 학부가 없이 석사과정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학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열의가 대단해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강의를 통한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Lecture'보다는 'Discussion'의 공부를 해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확실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보다 학생에 의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다시 한국에 와서도 활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배우는 학생 양쪽 모두 많이 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도서관은 그냥 대출, 열람 서비스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학교에 온 뒤에는 사서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현장에도 가게 되면서 그 이외의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지금 '디지털도서관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관심이 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북구 북 페스티벌'과 같이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이용자와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와 이용자가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온라인 서점이나 검색엔진과는 다른 도서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거창하게 할 말은 없고 저를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가오기 쉽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게 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라고 너무 어려워해서 다가오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주세요.

기사 : 이보라(12) 이청수(12)

편집 : 이용준(12)



도활부 새날공부방 봉사활동 후기



기사: 이시연(06)
편집: 이정민(12)

지난 7월에 '도서관 활동부'(이하 도활부)의 첫 활동이 있었습니다. 도활부는 학부생들에게 학생회 차원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도로 이번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도활부에서 주최한 도서관 활동(이하 도활)에 참여한 학생들이 글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배워보면 추후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첫 도활 장소는 경기도 부천의 '새날공부방'이었습니다. '새날공부방'은 편모, 편부 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약 천 권의 도서를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서들은 모두 후원을 통해 들여온 것들이었는데, 중복되는 도서나 오래된 도서가 많아 이것들을 정리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작업은 도서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었는데, KDC를 기본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기 편하도록 도서의 독서 연령을 기본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분류된 도서들에는 일일이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엑셀파일에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수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작업절차들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늘리기 위해 주최했지만 막상 도활에서 얻은 것은 그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고, 수서를 하는지는 학과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는 배울 수 없는, 그렇기에 제가 글로 표현하기도 힘든 어떤 뿌듯한 감정은 직접 도활을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서작업 외에 공부방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해주고, 같이 웃고, 식사하고, 인사하고, 안아주었던 그 모든 일에서 느꼈던 감정은 제 미력한 글 솜씨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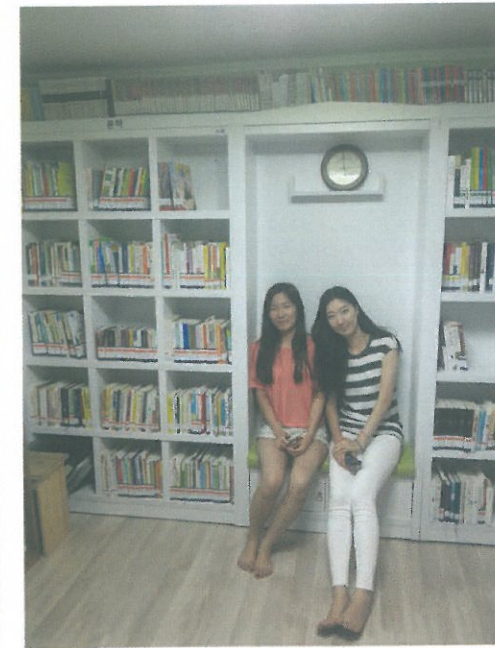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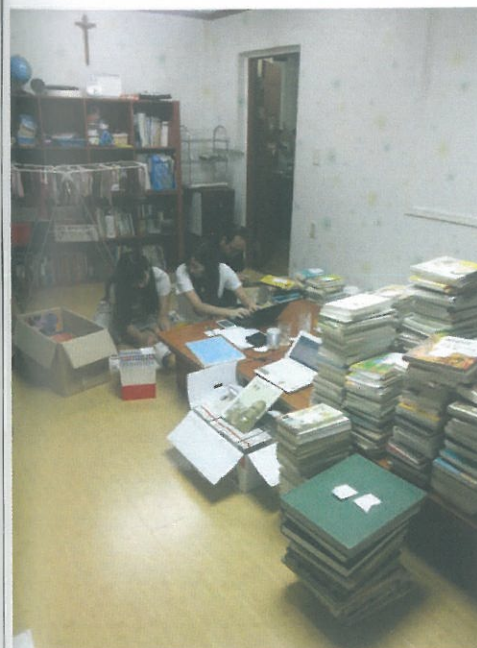
공부방에서의 2박 3일간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곳을 떠나던 날 수녀님께서 해주신 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작품이고,
아이들에겐 정말 큰 선물이에요.”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약한 솜씨로 머리를 모아서 겨우 만들어낸 것이 누군가에겐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사서는 이용자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남이 내가 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이미 나는 보상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도활을 통해서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어설피기 마련입니다. 도활부원 모두가 모여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어색한 사이에서 밤을 새워 일하며 친해졌던, 그렇게 해낸 우리의 첫 도활은 투박했지만 아름다웠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선물을 앞으로 도활에 참여할 모든 학생들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뜻함과 나눔이 있는 그곳, 우즈베키스탄!

기사 : 이청수(12)
임현설(12)

편집 : 임진영(12)

익숙하게 들리는 이름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한 국가로밖에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은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다. 낯설음에 굴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와 친해지기 위한 지정인의 활동이 여름방학 때 있었다. 대부분의 지정과 학우들이 아르바이트와 스펙쌓기, 여행 등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살아 갈 때, 해외봉사를 통해 타인과 자신의 시간을 나누며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한 몇몇 학우들이 있었다. 그 학우들 중에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시온고' 라는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이상혁(08), 오슬기(10), 두 명의 학우와 10월 8일에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름방학 동안 갔다 온 봉사활동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학생지원팀이 주관하는 학교 자체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진행되지요. 학생들은 총 6가지 부문에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한 후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야 해요. 결과는 심사 후 1~2주 후에 나오고 심사를 통과한 학우들은 워크숍을 갔다 와요. 출발하는 날은 봉사할 지역과 협의한 후에 결정되고, 파견기간은 방학기간 중 20일 정도 돼요.

해외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상혁 : 1학년 때는 해외봉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먼저 갔다 온 최가현(08) 친구가 해외봉사에 대한 보람 있는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어서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1, 2학년 때와 달리 활기찬 생활이 어렵고 지루했는데, 해외봉사를 한다면 지루한 생활에서 벗어나 보람 있는 생활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슬기 : 어렸을 때부터 해외봉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언니가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저에게도 갔다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추천해주었어요.

해외봉사단의 선발 과정은 어떠셨나요?

이상혁 : 서류를 제출하려면 서류에 태권도, 영상 제작, 난타와 같은 특기를 적어야 했어요. 그러나 저는 특기가 없는 것 같아 그 대신에 '그림비'를 제작한 적이 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왜 뽑혀야 하는가?' 였는데 저는 유럽과 아시아를 흔들 수 있는 외모를 지녔다고 면접관에게 당당하게 대답했지요.

오슬기 : 면접에서 제가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힘쓰는 일은 뭐든지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원래부터 해외봉사에 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했어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람 있는 일과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나요?

이상혁 : 해외봉사를 갔을 때 시온고 마을의 아이들 중 7~18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을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해외봉사단원들의 역할 분담을 할 때, 저는 서기를 맡았고 문화공연으로 밴드와 차력을 준비했어요. 힘들었던 점은 분야별로 조직을 결성해서 학기 중에 매주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책임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어요. 또한, 사전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어를 쓸 것 같아 공부까지 해갔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더군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웠지요. 영어도 안 쓰는 곳이라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겨우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바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오슬기 : 저도 한국어를 가르쳤고요, 잔디밭에 있는 유리를 치우는 등 환경정리를 했어요. 또한, 사물놀이 댄스팀장, 연극, 밴드, 난타, 차력, 태권도, 부채춤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했을 때는 문화공연을 하고 나서 한 아이가 자기 인형을 가져와서 저에게 주었을 때예요. 힘들었던 점은 아침 6~7시에 일찍 일어나서 군인이 하는 '국군맨손체조'를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할 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이상혁 : 시온고 마을을 다시 가고 싶네요. 다시 갈 땐 러시아어를 익혀서 그때 만났던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슬기 : 저도 다시 가고 싶어요. 막상 시온고 마을에 가서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돌아해보면 그 당시가 많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 그리워졌거든요.

해외봉사를 추천하거나 혹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이상혁 : 추천합니다. 4년 동안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게 없었는데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갔던 낯선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와 다른 생활방식을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졌는데, 다른 지정과 학우들도 이것처럼 가슴에 남는 뜻깊은 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시기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3, 4학년이 아닌 1학년 말에서 2학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 또는 사람들과 어울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오슬기 : 저도 추천합니다. 시온고 마을에 있을 땐 시간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지막 날이 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외국에 처음 가본 것이어서 비행기를 타는 것이 즐거웠고, 힘들었지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았어요.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이상혁 : 해외봉사를 마치고 문화 탐방을 할 때 '차르바 호수'에서 바나나 보트를 탔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봉사활동을 가기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오슬기 :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마지막 날이 되니 아쉽더군요. 문화 탐방을 하면서 보낸 사흘의 시간은 즐거웠어요. 그런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오니 아쉬움과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수인 학우에게 듣는다. 책마을 작은도서관!

1. '책마을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원할 당시에 저는 휴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책마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듣고 온 친구가 저에게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자고 제안했어요. 일단 저는 휴학생이라 시간도 많았고, 4년 동안 단일전공을 한 것에 비해 실습 경험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 전에 실무를 경험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2.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알려 주세요.

처음에 지원할 때는 5명이 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사는 곳이 다들 달라서 각각 다른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한 곳은 공부방 도서관이었어요. 이 도서관은 분류도 목록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분류와 목록 그리고 프로그램 작업을 했어요. 이곳은 전문 관리 프로그램 대신 도서 대여점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목록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목록을 다시 정리했어요. 한편 저는 아이들과 함께 청구기호 찾아보기, 책을 찾고 정리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3. 가장 보람찼던 점은 무엇인가요?

서가에는 아이들 개인 문제집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개인별로 파일 박스를 만들어 주었어요. 책을 새로이 분류하고 목록 작성을 완성했을 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리를 끝마친 후 아이들에게 책 대출을 권장했어요. 그리하여 첫 대출자가 생겼을 때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해주니까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이때 역시 매우 보람찼어요.

4.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제 생각에 맞게 일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다만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이 많아요. 도서관이 공부방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아쉬웠어요. 그리고 도서관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서 생각해두었던 프로그램들을 새로 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활동 보조금으로 1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돈을 파일박스 등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것에 다 써버린 것이 아쉬웠어요.

5. 도서관 활동을 하신 후 느낀 점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이론을 배우던 4년 동안은 작은도서관이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무를 접해보니 작은도서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으로 배운 것 만으로는 실무를 완벽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6. 그렇다면 이론과 실무에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론에서는 목록작업을 중심으로 부가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목록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MARC' 와 같은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등 전문적이고 세세한 작업들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책마을 작은도서관은 그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지 않고, 전문정보다는 실용성을 위주로 하여 운영하더군요. 그것의 한 예로 제가 일했던 공부방 도서관에서는 MARC를 쓰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KOLASYS'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록을 작성했는데, 그 시스템은 오류가 많아서 이론상으로는 알지 못했던 많은 애로사항을 경험했어요. 또한, 이 도서관에서는 이론에서 배웠던 반입목록 사용이 불가능해서 공동 반입 목록을 사용했어요. 한편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서도 이론과 실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론수업에서 프로그램 진행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배우기는 했어도 실제로 이용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7. 수업 면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할만한 것이 있으세요?

도서관 프로그램 실습을 수업시간에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는 정기적인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요.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3, 4학년 학생 중에서도 도서관 실무를 경험해 본 학생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우리 학교는 독서를 중시하는 성북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도 도서관과 연계를 맺는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연계의 한 사례로 '대진대학교'는 노원구 도서관들과 연계를 맺고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 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 실무의 중요성을 잘 알아차리고,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봉사 등의 정기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8. 사서 활동에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행복한 도서관재단 홈페이지에 사서보조 활동 공고가 게시돼요. 그러면 그 글을 읽고 안내하는 사항대로 하면 돼요. 지원서에는 프로필과 활동계획 등이 들어가게 돼요. 활동계획은 상세할수록 좋아요. 저희 팀은 각자 지역이 달라서 떨어질 가능성이 컸는데, 지원서를 성실하게 쓴 덕분에 붙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원할 때는 총 12개 팀 45명 중에서 7개 팀 30명이 선발되었어요.

LAST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수면 아래 백조의 발은 마치 사서와 같다고 생각해요.
단 한 사람의 이용자라도 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면,
사서로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낮선 곳,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특별한 경험

기사 : 정호빈(11) 편집 : 김채영(12)

매년 여름 40~50명 정도의 학우들을 선발해 학교의 지원을 받고 외국에 나가 그 나라를 보고 느끼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있다.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미래기행문으로 최종 선발한다. 그리고 이번 문화탐방에 선발된 나는 2012년 8월, 유난히도 더위가 심했던 여름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다. 항상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궁금해 하던 나에게 이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문화탐방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거리이지만 바닷길을 통해 가서 보았던 블라디보스토크는 왕복 2일(44시간)이나 소요된 정말 먼 거리 여정이었던 같다.

여행 중 가본 곳은 많지만 가장 생각나는 것은 ‘중앙광장’과 ‘영원의 불꽃’ 그리고 ‘신한촌 기념비’였다. 먼저 ‘중앙광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승리의 깃발과 나팔을 든 병사의 거대한 동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영화 ‘태풍’의 촬영장소로 새해맞이 행사와 전승 기념일 등 지역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다. 그러나 우리가 갔을 때에는 ‘APEC’준비로 인해 광장 내 블록들을 교체하고 있어서 약간은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영원의 불꽃’이라는 곳은 참전 용사의 이름을 담은 승전 기념탑이 세워져있고 참전 용사를 추모 하는 장소로,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갔을 때에도 몇몇 러시아 인들이 추모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남는 곳은 ‘신한촌기념비’이다. ‘신한촌기념비’는 러시아 최초로 한인촌이 형성된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이 지역이 항일 독립운동 성지로 많은 작전을 수립한 것을 기리는 의미를 지닌다. 이곳에서는 이질적이었던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나에게 익숙한 한국의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시내 곳곳에서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의 영향으로 도시를 새롭게 꾸미고 있다고 하지만 건물들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도로운영방식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도로가 양방향인 반면 블라디보스토크는 거의 다 일방통행 도로였고 신호등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어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차를 하고 기다려주는 등 나름대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을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돈을 내고 이용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동안 화장실 이용은 대부분 숙소에서 해결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음식점 화장실에서 해결했다. 네 번째로는 추운지방이다 보니 음식이 대체적으로 기름기가 많다는 것이다. 몇 군데 관광지를 둘러보고 현지음식인 ‘샤슬릭’과 ‘보르쉬’를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샤슬릭’은 보통 고기요리라서 먹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보르쉬’는 너무 느끼해서 그런지 한국인인 나의 입맛에는 약간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 2학기가 시작되고 바쁜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에 치여 블라디보스토크 문화 탐방이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기고를 부탁받았다. 수기를 쓰기 위해 그 때의 사진을 다시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보니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나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문화탐방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꼭 추천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다.

지정인의 빛나는 얼굴

편집 : 임진영(12)

낙산체전



낙산제



지정과 선거



지식정보학부
학술답사

3일의 여정 끝에 구한 지혜

지난 11월 6일부터 8일, 지식정보학부 전 학년의 학우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지식정보학부 학술답사를 떠났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한성대학교에서 출발해 수원 '삼성학술정보관'을 시작으로 정읍 '기적의 도서관', 청주 '고인쇄박물관'까지 많은 것을 직접 체험한 후 뿌듯한 마음을 안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답사 첫날, 첫 번째로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을 방문하였다. '삼성학술정보관'은 2009년 제 14회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멋진 건물이다. '삼성학술정보관'은 성균관대학교의 상징인 은행잎을 모티브로 삼고, 책을 펼친 모양을 형상화해서 건축하였다. 1층과 2층은 멀티미디어 존으로 학생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다. 삼성의 지원과 함께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들이 총망라 된 곳이었다. 3층과 4층은 기존의 중앙도서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시설로써 개가식 열람실과 자유열람실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5층은 새로운 개념의 복합 공간이다. 폐쇄된 독서실이 아니라 카페와 테이블이 공존하는, 친구들과 책에 대해 토의를 하거나 수다를 떨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6층과 7층에는 스텝 공간, 정보통신실, 서버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7층은 관리를 위해 중앙 홀을 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과 전용 대학의 도서관인 만큼 색다른 분류표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분류표는 KDC가 아닌 과학 분야가 세분화되어있는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지는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지평선중 ·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개관한 지 10년 정도인 비교적 신식 학교이다. 이곳은故정기용 선생님의 유작으로, 굽지 않은 흙벽돌과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흙 담으로 된 남녀 기숙사 등 자연친화적인 건축이 특징이다. 도서관은 학교 전체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도서관 내부는 그리스 시대의 광장모양으로 되어있어 어디서나 도서관 내부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도서관에서는 장서 외에도 '김장하기'나 '도자기 만들기' 등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분류표에서는 '200 종교' 중에 원불교 서적이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했다.



답사 2일차에는 먼저 전북 고창군 '질마재 마을'에 위치한 '서정주 문학관'에 방문하였다. 질마재는 미당 서정주 시인께서 소년 시절까지 살았던 고향인 동시에 돌아가신 곳이다. 또한 천여 편의 작품 중 절반가량의 소재는 '질마재 마을'에서 얻어 쓰셨다. 바로 그 곳에 '미당 문학관'이 세워지고, 문학제가 열리고 있었다. 문학관 관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서정주 시인의 물품 등을 전시 해놓은 문학관 1층에서부터 전망대가 있는 옥상까지 관람을 한 후 서정주 시인의 생가까지 이어지는 짧은 길을 돌아보았다.

문학관을 떠나 도착한 곳은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선운사'였다. 산 입구에서 '선운사'로 가는 길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절벽과 그 절벽을 뒤덮을 정도로 자란 송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단풍들이 울긋불긋하게 만발하였고 그 옆의 작은 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선운사' 내부는 고요하면서도 많은 관광객들로 가득 찬 생기 넘치는 공간이었다.

'선운사'를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정읍에 위치한 '기적의 도서관'이었다. '기적의 도서관'은 '지평선중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故정기용 선생님이 지으신 어린이 도서관으로써 무지개와 달팽이를 상징물로 삼고 있다. 도서관 지붕에는 달팽이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천장은 무지개를 닮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무지개 모양의 천장은 정기용 선생님이 비닐하우스를 보고 연상한 모습으로 건축한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채소가 자라듯,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고 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많고 도서관 내부에 비밀공간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학술 세미나와 뒤풀이가 있었다. 각 조는 각자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발표하며 답사에 의미를 더했다. '삼성학술정보관'에 대해서는 "공부공간이 많아서 좋았다.", "건물 벽면 대부분이 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채광이 좋았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토존, 카페, 컨벤션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복합 공간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곳여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단점으로는, "거대한 규모에 비해 이용자들의 수가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평선 중 · 고등학교' 도서관에 대해서는 "원불교의 상징이 곳곳에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전통 체험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한편, "출입구가 많아 책 분실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장서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북 스타트", "도서관에서 놀아요", "책모임" 등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지개 모양의 도서관 외형과 그 위의 달팽이 모양 조형물이 주변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단점으로는 "벽에 낙서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철제계단이여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위험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즐거운 뒤풀이로 학우들 간의 친목도 다지며 답사 이틀째의 하루는 마무리 되었다.



답사의 마지막 날, '새만금홍보관'과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먼저 간 곳은 '새만금홍보관'이었다. 2010년 4월 27일, 전라북도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약 20년 만에 준공되었다. 그 후 2012년 7월 19일, 새만금방조제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새만금홍보관'을 개관하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새만금방조제를 축소해 놓은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청수(12)학우는 "모형을 통해 새만금의 면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되고 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홍보관의 맨 꼭대기 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새만금방조제의 규모를 육안으로 느낄 수 있게 되어있다. '새만금홍보관'은 전체적으로 새만금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천천히 길을 따라 걸으며 벽면을 바라보면, 새만금을 짓기 위해 있었던 수많은 세월의 흔적과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새만금홍보관'을 지나쳐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 향했다. '고인쇄박물관'은 직지의 위대함을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개관되었다. 직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이곳 '고인쇄박물관'은 직지의 영인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직지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이라는 소개를 시작으로 직지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강조하고 금속활자본의 역사와 '고인쇄박물관'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나서 건물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형을 만들어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쇄의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쇄하는 각각의 과정에서 사람모형이 움직이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과 동작을 보면 인쇄과정의 이해가 쉬웠다. 그밖에도 박물관 곳곳에 직지와 인쇄에 관련된 설명과 유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렇게 '고인쇄박물관'을 견학하고 나서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홍덕사'를 방문하였다. 지금의 '홍덕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아닌 복원된 건물이었다. '홍덕사'는 직지를 간행한 곳으로 현재는 '고인쇄박물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두 곳을 다 둘러본 후에 모든 지정과 학우들은 '고인쇄박물관'의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며 재미있고 유익했던 답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답사가 끝난 일주일 후, 조교님들을 찾아갔고 학우분들에게 전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환기 실습조교님

"2004년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올해 답사를 처음 가봤는데 얼굴만 알던 친구들과 2박3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좀 더 많은 후배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김혜원 행정조교님

"개인적으로 두번째 답사였는데, 2008년에 갔을 때는 학생으로 추억을 쌓기 위해 갔었다면 이번에는 조교로서 학우분들에게 추억을 쌓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갔다. 결과적으로 학우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이번 답사가 학우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금돈섭 행정조교님

"2박3일 동안 많은 인원이 참가 했는데 학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사고 없이 갔다 올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 앞으로 답사가 더 많이 생길 예정인데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정소식]

“고생하고 함께하고 소통하는 이상적인”

29대 학생회 고함소리



“지정의 식구가 여기에”

30대 학생회 지식IN



공약 중에서 잘 실천된 공약 & 잘 안된 공약, 그 이유

도서관활동부(도활부)의 신설이요.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높이기 위해 학생회가 주도해서 도활부를 신설하려던 것이 공약이었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여름방학 때 신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간식 사업도 잘 실천된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예정된 기간에 맞춰서 주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아요. 호응도 좋았고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잘 지급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과실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은 아쉬움이 남네요. 소파교체와 가구리폼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과실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과실청소라든지 음식섭취에 대해서 엄격했었어요. 올해는 학생회장님의 의견으로 학생회가 먼저 나서서 청소를 하고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청소도 초반에만 잠깐 지켜졌었고 제재가 없어서인지 전체적으로 과실을 함부로 사용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회장,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이시연 학생회장 - 솔직하고 가감 없이 말할게요. 당선되고 처음부터 학생회 내에서 작은 의견차이가 있어왔는데 이것들이 쌓여서 여름방학 쯤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결심했을 때가 힘들었어요. 그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을 보면, 과감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린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가지가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1년 자체가 다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장으로서 힘들었고 치열하게 고민한 만큼 색다르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주용 부학생회장 - 처음 우리 3명이 공식적으로 준비했었던 새터!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큰 행사였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가서 인솔하는 재학생들, 따르는 신입생 모두가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처음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그 뒤에 진행됐던 일들은 새터에 비해서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김다혜 부학생회장 - 지금 딱 뭘가 생각나는 건 연합애틀 뒤편이 때 만우절 기념 몰래카메라예요.

제 29대 학생회 ‘고함소리’의 이름대로 잘 실천했나?

고생은 충분히 했고 함께도 했는데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학생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회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 말해왔지만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부족함을 느꼈을 때 ‘무엇인가를 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준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학생회라는 기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생회는 개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기구예요. 이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에게 용기내서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줬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30대 학생회에 바라는 점

이시연 학생회장 - 학생회장외에 부학생회장과 집행 부 . 차장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그러다보니 자신의 일이 벅차서 함께 하는 일에 서로 미루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고 이미 하고 있는 일에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해요.

정주용 부학생회장 - 위에서 소통에 대해서 말했는데 학생회와 학생간의 소통문제도 있었지만 학생회 내에서의 소통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장단은 더 넓게 보고 활동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 기구로 가면 더 많은 소식들을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과의 상황을 보면서 좋은 것은 우리 지정과에 접목시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안전이 있을 때 무조건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언쟁이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다혜 부학생회장 - 학생회라면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이 꼭 필요해요. 집행 부 .차장인 경우 정말 그 집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누구나 시간이 없고 누구나 그러한 상황을 이해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 제대로 된 학생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라는 점은 다음 학생회는 다 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간을 같이 모이고 같이 노세요! 서로서로 친해서 단합이 잘 된다면 무엇을 해도 다 잘 될 거예요.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유

유영록 학생회장 - 이렇게 그냥 졸업을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고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학년 때만 기획부 일을 하고는 학생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학생회장이 돼서 예전의 일을 만회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윤아영 부학생회장 - 한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출마했습니다.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김영오 부학생회장 - 누군가를 이끌어 가는 게 재미있어서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정과를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 출마했어요.

제 29대 학생회에게 배울 점

유영록 학생회장 -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했다는 점을 가장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간식배부라던가 이런 거는 생각 못했고 준다고 해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식배부가 호응이 좋은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오나 아영이처럼 발랄하면서 생각이 깊은 친구들과 파트너가 돼서 함께 한다는 게 다행이고 기쁩니다.

주된 공약. 이름의 뜻. 어떤 식으로 학생회를 이끌 것인가?

도서관 실무경험의 확대, 분기별로 학생회비 예산 집행 내역 공개, 학생회실과 실습실 환경개선, 과 행사에 대한 확대 운영 이렇게 4가지 공약을 세웠습니다. 주된 공약을 꼽으라면 도서관 실무경험 확대와 과실과 실습실 환경개선이예요. 도서관 실무경험의 확대가 가장 애착이 가고, 실제로도 도활부의 활동을 좀 더 늘리고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예요. 그리고 과실과 실습실 환경개선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고 전대에서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말만 앞세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저희의 말을 학생들이 믿을 수 있도록! 겨울 방학부터 바로 실시를 할 계획이예요. 이름은 ‘지정의 식구가 여기에’ 라는 뜻의 ‘지식IN’입니다. 식구는 가족이라는 뜻이니까 서로 유연하게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었고 학생회 운영에 있어서도 집부는 나누어져있지만 각 집부가 서로서로 같이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해를 이끌어갈 회장단으로서의 각오

유영록 학생회장 - 학번차 이를 생각하지 않고 파트너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세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겁니다.

윤아영 부학생회장 - 서로서로 소통해서 화합이 잘 되는 한 해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영오 학생회장 - 가능한 선 안에서 일을 벌이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소개

도활부 - 외부 봉사 담당

‘도활’은 ‘도서관 만들기 활동’의 줄임말입니다. 도활부는 도서관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여름 방학 즈음에 신설되었습니다. 도활부에서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현장 경험도 쌓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소모임 활동, 부천 새날 공부방 도활, 경수중학교 배가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과 내 소모임 활동, 교수님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다른 학교 문헌정보학과 봉사 동아리들과의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나 도서관 봉사에 관심 있는 후배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도활부 부장
정상권(07)

도활부 차장
황덕영(10)

기획부 - 행사 담당

기획부는 기본적으로 학생회 내의 모든 행사를 담당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장소 예약 및 비품구비, 학생회가 내세운 공약의 실행을 위해 가장 많이 호흡을 맞추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MT나 지정인의 밤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행사의 틀을 준비합니다.

기획부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또 다른 것은 공모전입니다. 기업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 여러분들의 스펙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부에서 색다른 보람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획부 부장
권혜진(11)

기획부 차장
신광우(11)

문화부 - CUTE people 담당

우리 문화부는 집부 중 귀여움을 맡고 있어 ‘CUTE 문화부’이기도 합니다!! 교내 행사나 학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임과 더불어 가요에 맞춰 춤을 추면서 그 행사를 함께하고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집부와 달리 우리 문화부는 특별한 장구나 특기가 없어 어렵지 않게 함께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2013년 문화부와 함께한다면 더욱더 즐겁고 알찬 새내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부 부장
윤아영(12)

문화부 차장
유재훈(12)

집행부소개

선전부 - 알림이 담당

선전부의 대표적인 활동은 각종 행사 및 알림사항에 대한 자보를 쓰는 것입니다. 자보를 써서 시험기간에 지정과 학우분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일시와 장소를 알리기도 하고, 여러 행사의 참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에 지정과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정인의 밤’이라는 행사에서 지난 1년간의 모습을 모아모아 큰 감동을 선사할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사랑하는 13학번 후배 여러분! 자보를 써야하니 글씨를 예쁘게 잘 써야 할 것이다! 혹은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들은 모두 가볍게 PASS! 자보는 자신의 개성만으로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컴퓨터를 못해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가진 선전부를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전부 부장
정다솜(12)

선전부 차장
조성미(12)

편집부 - 활동 기록 담당

편집부는 지식정보학부의 특성을 살린 집부로서 ‘그림비’라는 학과 활동지를 만들어 지식정보학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부원들은 편집과 기사 두 파트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편집부 활동을 하면 기사 작성 능력과 기사 편집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선배님들과 각종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값진 이야기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비라는 결과물을 얻음으로써 돌아오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기 말, 그림비가 배부되면 지식정보학부의 학우들은 그동안 있었던 지식정보학부의 추억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는 편집부에서 뿌듯함을 느껴보세요^^

편집부 부장
이형수(12)

편집부 차장
이보라(12)

기사 :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각부 부장

편집 : 임진영(1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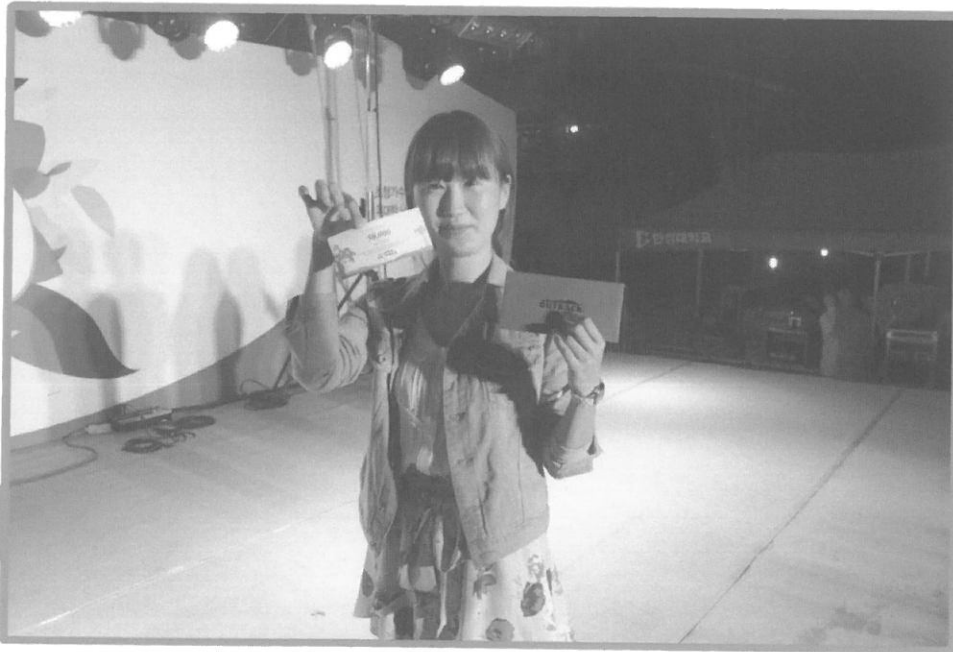
제 1회 낙산제!

기사 : 김욱(12)

편집 : 이용준(12)

지난 9월 20일, 21일 한성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학기 축제인 '낙산제'가 열렸다. 이전에는 축제를 주최하는 곳이 매년 달랐기 때문에 '웅비제', '현무제'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올해는 4개의 단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낙산제'라는 이름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말하자면 제 1회! '낙산제'이다.

6시가 되었을 때 4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인, 사, 예, 공 총 4개의 단대가 함께 모인 축제의 막이 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자취생 요리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대회에 나온 4명의 학우는 소고기 주먹밥, 닭가슴살 샐러드, 토마토 스파게티 등 각자 나름대로의 음식을 선보였다. 요리가 다 완성된 후에는 구경하던 관객들 중 몇 명을 뽑아서 심사위원과 별개로 청중평가단으로 세워 순위를 매겨 상품을 주기도 했다. 닭 가슴살 숙주나물 샐러드로 전체 2위를 한 김효진(12) 학우는 "재료비까지 지원해준다는 자보를 보고 그냥 참가했는데 2등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청중 평가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는데 너무 떨렸고 심사위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2등이라고 발표가 났을 때 정말 다행이었고 기뻐다. 참가한다는 말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대회 중간에 지정과 동기들이 응원하러 와주어서 고맙고 민망했다. 상품으로 받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5만원 상품권'으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2
NAKSAN
FESTIVAL

그리고 다음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깜짝 행사로 림보 게임을 했었다. 맨 처음에 림보 게임을 하기 위해 나간 학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붐의 높이가 점점 내려갈수록 학우 수가 기하급수 적으로 줄어갔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더 유리할 것 같았지만, 예상 외로 남자가 더 잘하였고 우승자 역시 남자가 되었다. 끝까지 살아 남은 마지막 남자 두 명은 무릎 보다 약간 높은 곳에 있던 붐을 통과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둘째 날에 가장 크게 했던 행사는 가요제이다. 각 단대에서 노래에 자신 있는 학우들이 출전하여 각자의 기량을 뽐내었다. 그 후에 각 동아리에서 랩, 밴드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축제 무대가 준비된 곳 반대편, 어디선가 버스커버스키의 노래가 들려서 바라보니, 이리저리 돌아가는 디스코팡팡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디스코팡팡을 타려는 학우들은 끊이지가 않았다. 디스코팡팡을 탄 학우들은 "구르는 모습을 보일 순 없다!!는 각오로 절대 붐을 놓지 않고 매달렸다." "나 혼자 떨어져서 바닥을 쓸고 다닌 것이 너무 창피했지만 재미있었다." "옛날에 탔을 때는 무릎을 다쳤는데 이번에는 다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조명이 반짝반짝할 때 제일 스릴 넘쳤다!" 등의 소감을 말했다.

주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홍보가 부족했던 것일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생각보다 축제에 참여한 학우들이 많지 않았다. 2학기 축제 '낙산제'는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1학기보다 행사의 진행이나 구성이 탄탄하였고 즐길 거리도 많았다. '낙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2학기 축제는 '낙산제'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최한다고 한다. 주최 측에서도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우리 학우들도 '낙산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음 '낙산제'부터는 더 많은 학우들이 즐겼으면 한다.


2012
NAKSAN
FESTIVAL



승패를 떠난 지식의 멋진 승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린 '낙산제전'은 한성대학교의 4개 단과대학이 8가지 경기에 참여하는 행사이다.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은 총 3가지 종목에 참여하였다.

첫 번째 경기는 9월 24일에 있었던 '족구 경기'였다. 족구 경기는 12학번 신입생부터 09학번 재학생까지 선후배가 고루 참여하였다. 16강 경기의 상대는 사회과학대의 족구 강호, '행정학과'였다. 1세트에서는 강호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지식정보학부가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2세트에서는 지식정보학부가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행정학과'에게 고전하다 결국 패배하였다. 마지막 3세트에서는 지식정보학부가 다시 혈기 왕성한 모습으로 인상적인 공격을 펼치며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는 2대 1의 스코어로 지식정보학부의 8강 진출이었다. 1세트는 지식정보학부가 수월하게 승리했지만, 2세트에서는 정신을 무장하고 나온 '부동산학과'에게 고전하였다. 마지막 3세트에서는 양 팀이 호각지세(互角之勢)를 보이며 접전이 벌어졌다. 양 팀 선수들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 승리의 여신은 아쉽게도 '부동산학과'의 손을 들어주었다.

26일에는 '멀티미디어공학과'와의 '농구 경기'가 있었다. 결과는 19 대 11, 지식정보학부의 패배로 끝이 났다. 전반적으로 팽팽한 경기였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양 팀 점수 차이의 원인이 되었다. 경기에 참여한 한 선수는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선후배간의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경기여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27일에는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의 '축구 16강 경기'가 열렸다. 상대는 지난 공대제전 우승팀인 '기계시스템공학과'였다. 지식정보학부는 예상 선수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식정보학부 선수들은 공대 우승팀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며 선전했지만, 공이 골대를 자주 빗겨나가는 등 득점의 찬스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2 대 1의 스코어로 석패하였다.

한편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다른 지식정보학부 학우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응원전에서만큼은 '기계시스템공학과'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식정보학부 여학우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이 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띤 응원전을 펼친 지식정보학부 선수들의 하나 된 모습은 승패를 떠난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기사 : 임현설(12) 황순근(12)

객원기자 : 유재훈(12)

편집 : 이용준(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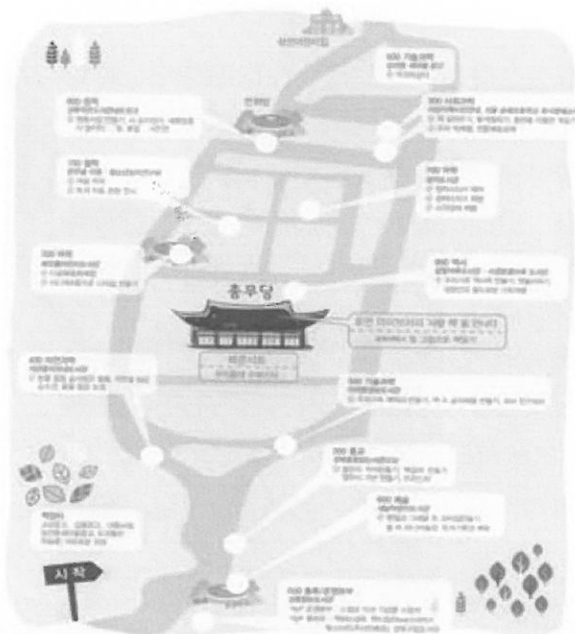
☆ 중요!!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다!!

책과 소통과 이야기가 있는 숲 속 도서관에 가다

“

000 태초의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주제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야를 총류로 모아둡니다. 100 혼돈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이성의 노력을 담은 철학을 두고 200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신을 숭배한다는 뜻에서 종교를, 300 인간이 가족과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학을 둡니다. 400 에는 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인 자연과학을, 이러한 지식이 기술로 발전되는 기술과학은 500,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이 600, 사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학은 700 에 둡니다.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 800도 나타나게 되고, 900 에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를 모아둡니다.

”



9월 15일 토요일, 성북구 삼선어린이공원에서 '책 읽는 성북 2012 북페스티벌 책 숲에서의 하루'가 개최되었다. '책 숲에서의 하루'는 '책 읽는 성북 북페스티벌'의 2012년 테마로, 제 4회를 맞은 휴먼라이브러리 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전공분야인 책을 주제로 한 행사이고 개최장소가 한성대학교 바로 옆 공원이었기 때문에 우리학과와 선배님, 동기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소모임 밴드 '치명타'의 공연이 있었다. 또한 강순애 교수님께서 휴먼라이브러리 사람책으로서 참여하셨다.



입구부터 10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진행했고 자원봉사자들은 대체로 이 부스에 배치되어 활동을 했다. 자원봉사자들 중 한 학생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동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좋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행사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또한 자원봉사자였던 임진영(12) 학생은 "감사합니다"라는 사소한 한마디에 힘이 났고, 수동적인 봉사가 아니라 그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봉사를 하여 뿌듯했다."고 전했다.

3시쯤, 총무당 앞 무대에서는 소모임 '치명타'의 공연이 있었다. 밝은 분위기의 선곡으로 행사를 찾아온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치명타'멤버 고주연(12) 학생은 "이번 공연은 치명타 3기의 첫 공연이라서 더욱 의미 있었으나 주최측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만족스러운 공연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순애 교수님께서 사람책으로 참여하신 '휴먼라이브러리' 행사는 총무당 내에서 열렸다. 교수님의 주제는 '당신에게도 planB가 있습니까?'였고 교수님과 학생들은 빠듯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휴먼라이브러리'에 참석한 김민주(12) 학생은 "강순애 교수님께서 사생활에 관한 얘기로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셨다. '현재 planA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planB를 포기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참여한 학우 7명은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고 자랑했다.

주최측의 준비와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책 숲에서의 하루'는 더운 날씨에도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행복한 축제였다.

나도 한마디

편집: 이정민



강지희@ 인생이 자유로운 한 해였다. 다양한 추억을 많이 쌓았고 안 해 보았던 일도 많이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한 해였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놀았는데 내년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강혜선@ 예비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달이네요. 공부를 열심히 못한 건 아쉽지만 지정과에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번 한 해도 무사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고주연@ 1학과와 2학기를 조금 다르게 생활해 보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2학년 때에도 2학기처럼 열심히 살아서 취업 등 모든 것에 성공하고 싶다 느낀 것이 많은 한 해였다.



권순상@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던 한 해였다.



김다정@ 한 해가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하다. 1학기 때보다 2학기인 지금, 더 많은 것을 해 본 것 같아서 뿌듯하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해 보아야겠다.



김병국@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다. 벌써 대학교 1학년이 끝나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겠다는 바람직한 생각을 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아끼며 알차게 보내고 싶다.



김보경@ 2학기는 1학기보다 더 빠르게 간 것 같다.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한 해가 벌써 다 가서 너무 아쉽다. 다음 학기는 지금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뭔가를 얻는 해였으면 좋겠다.



김에영@ 대학생활을 처음 하면서 힘든 점도 많고 낯설어 잘 못 한 것들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1년 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김예지@ 작년에는 대학교 올 걱정을 하고 있었을 시기인데 벌써 수능이 끝나고 한 해가 갔다는 게 놀랍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내년에는 더 잘 지내야겠다.



김민주@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달성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해보지 못한 자유를 누렸다. 앞으로는 전시회도 가보고 더 많은 활동적인 일을 해 보고 싶다. 또, 예전과는 다른(주입식)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해 방학에는 국내여행을 다녀 올 것이다.



김지영@ 지루하던 고등학교 수업과 달리 대학교 수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내년이 기다려진다.



김재영@ 예상했던 것처럼 1학년 시기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빨리 갔다. 집에 왔다 갔다는 핑계로 다양한 경험은 하지 못 한 것 같아 아쉽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싶다.



박제민@ 2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니 아쉽다. 학기 초 걱정이었던 학교생활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이 학교에 와서 유쾌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다. 다만, 다음 학년부터는 학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박혜성@ 과제와 시험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 버렸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계획도 세웠지만 막상 한 해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배소연@ 한 해가 정말 빠르다. 1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러면서 내년계획도 세워야겠다.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서희진@ 아직도 정말 이제 내 적성인건지 모르겠다. 좀 더 봐야할 것 같다. 하지만 학교생활은 정말 재밌었다.



여영재@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 아쉽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오건우@ 과제에 쫓기느라 바쁘다. 군대에 가서 2년간은 머리 쓸 일이 없으니 좋다.



오재석@ 계획했던 것보다 한 것이 없어서 좀 실망했다.



유예진@ 학교에 들어온 지 어느덧 많은 날이 지나고, 2학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1학년생활, 20살 생활을 더욱 알차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학기 생활을 잘 하여 좋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싶다. 우리 지정과 모두 모두가 잘 지내고 꼭~ 지금처럼...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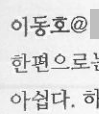


유재훈@ 한 학기를 마치면서, 우리 과 친구들의 많은 것도 자세히 알게 되었고,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는데 벌써 끝이라니 아쉬움이 컸다. 2013년도에는 문화부가 더 변창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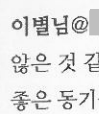


유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스무살 끝자락에 오다니...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나름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남은 두 달은 더 알차게 보내면서 한 해를 마치고 싶어요.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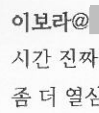
윤아영@ 너무 일 년이 빠르게 지나가서 아쉽다. 내년은 알차게 보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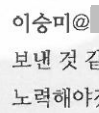
이동호@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놀랐다. 한편으로는 그 시간동안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첫 해를 재미있게 보낸 점은 좋았다. 앞으로 격을 '예비 사서'로서의 과정에서 뜻 깊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목표를 향해 조금씩 노력을 늘려나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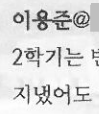
이별님@ 시간은 정말 빠르다.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론 것이 별로 없다. 쓸쓸하다. 그래도 좋은 동기들과 교수님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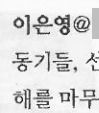
이보라@ 벌써 1년이 지나서 롤링페이퍼를 쓴다니... 시간 진짜 빠르다. ㄷㄷ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되서는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있다. 학년이 올라가고 후배가 생긴다는 게 설레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 지정과 너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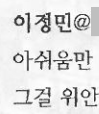
이승미@ 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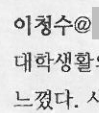
이용준@ 정말 빠른 한 해. 1학기는 놀다가 호지부지. 2학기는 반쯤 멍하게 호지부지. 따로 취미생활은 하고 지냈어도 대체적으로 호지부지한 한 해였다. 모두들 재밌게 보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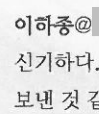
이은영@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간 것 같다. 동기들, 선배들과의 어색한 첫 만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려니 너무 아쉽다. 1년 동안 마음껏 놀았으니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많은 추억도 쌓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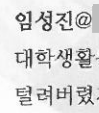
이정민@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다. 아쉬움만 남은 2012년이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걸 위안삼아 내년을 바라봐야겠다. 근데 곧 군대를 간다.... 토르르..



이청수@ 아... 오늘까지 살면서 나의 20살이, 대학생활의 시작이었던 한 해가 정말 빠르게 흘렀음을 느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2013년은 뜻 깊으면서 빠른 시간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2013년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사라져가는 2012년을 위해 그림비도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경험을 쌓는 2012년으로 마무리해야겠다. 다른 지정과 학우분들에게도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좀 더 성숙해지는 2012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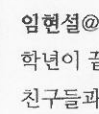


이하중@ 1학년이 벌써 다 지나갔다는 것이 신기하다. 다행히 좋은 동기와 선배님들을 만나 1년을 잘 보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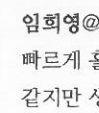


임성진@ 서지학을 배우며 멘탈이 붕괴되었지만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어 좋다. 정보학을 배우며 영혼을 털어버렸지만 아주 많은 정보를 안 것 같아 기분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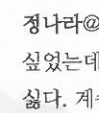
임진영@ : 대학교 생활 1년이 되어간다. 입학 전에 대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로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보니 제대로 지키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쉽다. 남은 2개월 동안은 계획대로 실천해서 이전만큼이나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다. 내년에도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학부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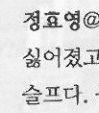
임현설@ : 입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학년이 끝나간다니.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대학 와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1학년이라 보람찬 1년을 보낸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나머지 대학생활을 알차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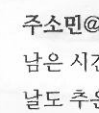
임희영@ : 벌써 1학년이 끝나가다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네요...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즐거운 추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추억 계속 쌓아가고 싶습니다. 지정과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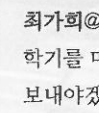
정나라@ : 대학생이 되어서 많은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놀았다. 벌써 새내기 생활이 끝나가니 싫다. 계속 20살이고 싶다. 군대가 다가오는 것도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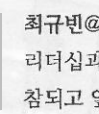
정효영@ : 2학기를 마치면서 군대에 가기 싫어졌고, 대학교 1학년 꽃다운 나이가 지나간다는 게 너무 슬프다. 군대 마치고 12학년 아이들이 친한 적 좀 해줬으면 좋겠고, 14학년 아이들도 잘 소개시켜줘서 과 생활을 잘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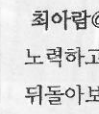
주소민@ :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신기하네요. 남은 시간동안 공부도 충실히 하고 진로도 찾길 바랍니다. 날도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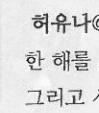
최가희@ : 벌써 2학기가 끝난다니 너무 아쉽다. 1학기를 마치면서, 2학기는 좀 더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못 한 것 같다. 2학년이 되어서는 후회하지 않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지금처럼 항상 사이좋은 지정과로 과 생활도 잘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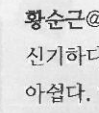
최규빈@ : 지식정보의 전공을 배우며 글로벌적 리더십과 나의 미래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여 참되고 앞서나가는 사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다.



최아람@ : 취직의 위협이 더 더욱 다가온다. 노력하고 알차게 보낸 시간이라 생각해도 언제나 뒤돌아보면 부족한 시간이었다. 세상의 더러움이 시시각각 나를 위협하지만, 우리 과는 그러한 것 없이 언제나 지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정이 있고 서로 위하며 같이 술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남기를...



허유나@ :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한 해를 보낼 때 올 해 보다는 여러 가지를 해 보고 싶다.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다.



황순근@ :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특별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 내년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즐기면서 뜻 깊은 한 해를 보내도록 노력해야겠다.

황인애@ : 입학 초기엔 학교생활이 정말 길게만 느껴졌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새대기가 아닌 현대기가 되었다.ㅠㅜ 정말 슬픈 일이지만 후배들이 온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1학년은 내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 지냈지만 2학년은 적당히 공부도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정과에서 재밌게 잘 보내고 싶다.

강연주@ 벌써 2학기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과목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1학기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앞으로 대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서령@ 1학기 때 교수님께서 왜 이 과에 지원했냐고 하셨을 때에는 성적에 맞춰서 왔다고 했다. 성적에 맞춰 왔기 때문에 이 과에 흥미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오@ 과가 나한테 정말 딱 맞는다.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을 만큼 좋다. 좋은 교수님, 동기,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좋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김옥@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 1학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학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2학년 때는 열심히 해서 지금과는 달라져야겠다.

김은지@ 한 학기 금방 지나가네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가는 나머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수업도 나름대로 잘 듣고 있어요.

김효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술만 마시다가 이번학기부터는 마음을 새로 하고 연합동아리도 들고 밴드도 하고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뿌듯합니다. 성실한 대학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곧 동기들은 군대에 갈텐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ㅋㅋㅋ

박가인@ 한 학년이 지났는데 처음 들어올 때보다 많은 친구와 전공의 자부심이 생겼고 학교생활도 재미있었던 것 같다. 1학기 때는 많이 놀아서 재밌었고..ㅋㅋ 2학기 때는 수업도 재미있어지는 것 같았다. 2학년 때도 지금처럼 단합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

박다운@ 벌써 2학기가 끝나다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말은 사실인가 봅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느껴요.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요. 하하.^^

박솔님@ 1학기 시작하면서 적응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벌써 2학기가 되서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생활도 즐거워지는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앞으로도 대학생활에 열심히 대학생활 하겠습니다.

박주희@ 1학년이 되어 생활한 게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학기가 끝난다고 하니 실감이 안나요. 그렇지만 동기들과 친해져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학교생활 하겠습니다.

박준범@ 새내기 배움터에서 혼자 어색해서 앞으로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의 마지막이네요. 몇 개월만 있으면 후배들도 들어오고.. 저는 군대에 가겠지만...ㅠ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태까지 대학생활 중 소중한 사람을 여럿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백수지@ 원해서 들어온 과인데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아 당황스러운 점도 있으나, 대학생활 자체는 색다르고 재밌습니다.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며 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합니다.

서영지@ 나와 잘 맞는 과에 온 것 같아 다행이다. 좋은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전공공부에 처음보다 흥미가 생겼다. 박희진 교수님과의 상담도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손중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쉽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고 전공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면서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2학기 때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지은@ 한 학기도 엄청 빨리 가고ㅠㅜ 일년도 빨리 가네요. 벌써 2학년이 되고 새대기가 들어온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설레네요. 우리 12학번 친구들 너무 좋고 다들 이렇게만 지내자!!

이동현@ 재밌게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희망차고 생기있는 나날의 연속이네요. 야마 지식정보학부는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이 아닐까 싶네요~ 지식정보학부 파이팅!!!

이서영@ 전공공부 뿐만이 아니라 조별과제, 발표수업, 토론수업을 등 참여하는 수업을 해서 좋다. 인문학, 사회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도 들을 수 있어 기쁘다.

이은옥@ 2학기가 끝나간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어색했던 대학생활이 어느덧 너무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어색해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학교생활 너무 너무 즐겁고 재미있네요!!! 아직 2학기가 조금 남았는데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지@ 한 학기가 이미 지나고 2학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나를 발전시키고 남은 대학생활은 잘 생각하면서 보내야겠다.

이정훈@ 한 학기를 보내면서 수학을 안 해서 좋았고 내 취미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이제는 성적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혁제@ 시간 한번 빠릅니다... 하지만 그 만큼 학교에서도 얻은 게 있으니 결과적으로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장보경@ 처음에는 수업을 들어도 전공에 대해 잘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알아야겠다.

장성수@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텅텅이 흘러가는 시간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동안의 지나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 그리 나쁘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다.

장원석@ 한 해를 보내며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났고 학점은 망했지만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슬슬 군대가 걱정이에요. 앞으로는 더 즐겁고 재밌는 학교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다솜@ 한 학기 동안 나름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잘 보내고 후회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일@ 전공이 나에게 약간 안 맞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과에 잘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좋은 교수님들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013년도 기대가 되는군요.

계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학생다운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조성미@ 입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학기의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네요.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은 시간도 알차게 잘 보내고 내년에는 저도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빈@ 동기들이랑 함께 대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입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해가 끝나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앞으로도 남은 대학생활을 더 알차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내고 싶어요.

한정민@ 한 해를 보내며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많이 만났고 학점은 그저 그렇지만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슬슬 군대가 걱정이에요. 앞으로는 더 즐겁고 재밌는 학교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황아영@ 대학에 입학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막상 대학생이 되고 어느 정도 자유가 생기니 게을러지네요ㅠㅜ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학생다운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편집후기

〈편집부 부장 & 차장〉이청수(12) & 이보라(12)

1학기 때에는 그림비의 일부분만을 책임졌었는데, 2학기에 편집부 부. 차장이 되어 모든 기사와 편집을 통솔해야했고 모든 것이 서툴렀다. 책을 한 번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부. 차장이라는 자리도, 그림비라는 중요한 과 소식지도 모두 버거웠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편집부 친구들의 도움이 우리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림비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의 그림비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시달렸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그림비를 받고 잠시나마 즐거워하길 빌어본다.

멋진 여는 말씀을 적어주신 강순애 교수님. 신임 교수님 인터뷰에 웃으며 값진 경험을 들려주신 박희진 교수님. 바쁘신데도 기고를 부탁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여주신 이시연선배님, 정호빈선배님. 서툰 인터뷰에도 정성껏 답변해주신 송수인선배님, 이상혁선배님, 오슬기선배님, 29대 & 30대 회장부회장님, 이환기 실습조교님, 김혜원 & 금돈섭 행정조교님. 절망에 빠져서 사진 구하러 다닐 때 사진제공 해주신 김효진언니, 한성대신문사 관계자분들. 뜬금없는 집부소개글 부탁에도 열심히 써주시고 군말 없이 사진까지 보내주신 각부 부. 차장님. 롤링페이퍼에 참여해준 모든 지정과 12학번 학우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그림비를 응원해주신 안미현선배님과 임호영선배님께 이번 하반기 그림비를 바치고 싶다.

그림비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 멀고 먼 길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앞으로 쭉쭉 성장할 그림비를 끊임없이 응원할 것이다!! 편집부 파이팅~! 그림비 파이팅~! 지정과 파이팅~!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나 고생한 우리 편집부원들에게 정말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편집부원들 사랑해♥

〈기사〉

임현설(12)

편집부원이 되어 1학기 첫 그림비를 만들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학년 마지막 그림비를 만들게 되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1학기보다 좀 더 멋진 그림비를 만들기 위해 우리 편집부원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다. 내가 기사를 잘 못써서 일기형식이 되어버려서 힘들었는데, 이번엔 기사형식으로 써보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기사다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 할 것이다. 그림비 만드느라 함께 고생하는 모든 편집부원들이 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 되었으면 좋겠다. ^^♥

최가희(12)

벌써 1학년 생활이 끝나고 2학년이 된 다는 것이 신기하다. 일 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편집부에도 나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두 권의 그림비를 완성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뻐다. 내가 작성한 기사를 통해 지식정보학부의 다른 학우분들께서 지나간 일과 좋은 추억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 한 편으로 나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잘 완성된 그림비를 보면서 다른 부원들과 부 □ 차장 친구들에게 고마우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편집부원이 되어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다. 이제 13학번 학우들이 새롭게 편집부원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

황순근(12)

2012년 2학기, 내가 참여한 두 번째 그림비가 나오게 되었다. 상반기에는 오로지 자신이 맡은 일만 했었는데, 하반기 그림비 제작에서는 피드백을 모두가 함께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결실들을 보며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교수님, 선배님들의 주옥같은 말씀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쓴 기사,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멋진 디자인까지! 한층 더 성장한 그림비가 정식으로 인쇄될 그 날이 굉장히 기다려진다. 한순간에 폭풍 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그림비이기에 더 애착이 가고, 나에게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그림비와 편집부에 감사한다.

김 옥(12)

처음이라 글쓰기가 힘들었던 1학기 편집부 기사 쓰는 것이 끝나고 어느새 2학기 기사도 끝났다. 이번에 나는 학교 축제인 산제와 답사 2일차에 대해 기사를 썼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갔던 곳과 축제 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했었는데 내가 기사를 쓰지 않았다면 그만큼 유심히 보지 않았을 것 같다. 기사를 쓴다는 것은 분명 힘들 일이라는 하나 그 기사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사를 쓰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점이 편집부 일의 즐거움 인 것 같다.

〈편집〉

김채영(12)

편집후기를 쓰려하니 지난 한 학기 동안 했던 수많은 회의들이 생각난다. 이번에는 더욱 지식정보학부다운 그림비를 만들기 위해 많은 회의와 수정을 거쳐야 했다. 모든 부원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모두의 생각을 합쳐 완성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편집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두 번째로 만드는 그림비이지만 아직도 편집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뿌듯한 그림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용준(12)

편집파트는 시작이 늦었기에, 여러 과제들과 겹치면서 많이 바빴다. 하지만 편집만 바빴던 것은 아니다. 편집부의 모든 부원들이 많은 일을 분담하며 열심히 했고 부장과 차장은 잠도 제대로 못자며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한 모양이다. 모두들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오자, 탈자, 맞춤법수정이다. 한 형식이 아닌 자료들의 내용과 오자를 교정하는 것은 꽤나 대단한 수작업이라고 새삼 느끼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는 건 달리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정민(12)

혁신적으로 발전된 올해 그림비. 특히 이번 하반기 그림비는 디자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편집부 들어 왔을 때 선배님들께서 만든 그림비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림비 제작에 참여하면서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여러모로 개선이 된 부분에 있어서 흡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부 □ 차장이 된 청수와 보라, 다른 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멋진 그림비를 만든 것 같다.

김진영(12)

벌써 2012년도 하반기 그림비를 낼 때라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시간이 참 빠르게도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하반기 그림비를 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는 지독히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집을 하면서도, 완성본이 마음에 들질 않아 몇 번씩이나 뒤엎는 과정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나 자신이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림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주체하기가 어렵다. 역시 편집부에 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편집부 파이팅! ^^

편집부장 : 이청수(12)

편집차장 : 이보라(12)

편집부원 : 김옥(12) 김채영(12) 이용준(12) 이정민(12)
임진영(12) 임현설(12) 최가희(12) 황순근(12)

발행일 : 2012년 11월 30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 남을 편집부'

발행인 : 이청수(12)

길이 남을 편집부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소식지

그림비

29대 학생회 고함소
길이 남을 편집부

2012 하반기



29대 학생회 고함소리
길이 남을 편집부